

함께 있더니(2)

(요 12:01-0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또 다른 제자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dana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 둘(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나dana엘은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비전과 약속,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dana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비전을 보는 자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따르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인내하며 꾸준하게 변함없이 충실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비전을 넓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 왔습니다. 나dana엘 처럼 조용히 꾸준하게 변함없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정열적이고 또한 완고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또한 지나칠 정도의 열심과 야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한 자리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오늘 이 본문에 요한은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명단의 거의 끝부분에 ‘세베대의 아들들’ 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둘’ 입니다. 아마도 요1장에 나오는 5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인 21장에 빠진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안드레/빌립) 12 제자들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제자들일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둘’ 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일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적어 놓을 만큼 두드러진 사람은 아니지만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자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소금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